

Vol. 73

www.hwashin.co.kr

Hwashin News Letter

하늘타리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

Hwashin News Letter

Hwashin News Letter

Hwashin News Letter

2025 / 07

CONTENTS

2025 / 07

05

TOP & TOPIC

기 획 테 마 창립 50주년 기념사
INSIDE 화 신

05
09

14

PEOPLE & TALK

기 자 의 이 슈 톱 햇갈리는 도로교통정책 2025
프 로 의 다 이 어 리 탁구, 탁치는 순간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화 신 영 리 더 한명은 밖에, 우리는 함께
오 피 스 절 친 화신의 소중한 가족, 반려친구들
화 신 인 스타 그 램

14
19
25
30
34

36

VIEW & FUN

동 행 의 기 썬 아내와 함께하는 유럽, 남편의 생존 여행기
C a r 트 렌 드 분 석 자동차 오일 관리의 중요성
트 렌 드 돌 보 기 1 하이브리드가 대세! MZ도 입는다!
트 렌 드 돌 보 기 2 2025년 AI(인공지능) 대격변 시대
편 집 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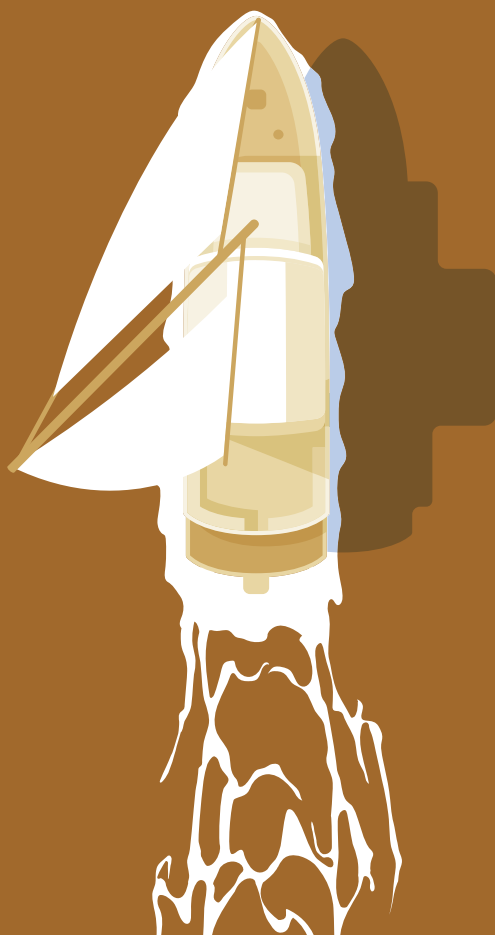
36
45
47
54
62

뭯을 올리면 시작되는 이야기
지평선 너머의 미지와의 약속
한 줌의 두려움도
파도 위에 흩어지면
그저 설렘만이 남는다

물결 따라 춤추는 구름
갈매기 울음소리 멀어지는 뱃머리
이여름의 향해는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한 귀향일지도

지도 없는 길이지만
별빛은 길잡이가 되고
심장은 나침반이 되어 바람을 읽는다

그리고 어느 한낮
고요한 수평선 위에서
나는 비로소 알게 되네
떠남이 곧 살아 있음임을



다가오는 새로운 50년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더욱 큰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화신을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구성원 각자의 노력과 성장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맡은 업무 하나하나가 미래를 이끄는
작은 혁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크고 값진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50주년 정서진 대표이사 기념사 중



창립 제 50주년 기념사

고난과 배움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든 오늘의 화신





오늘은 화신 그룹의 창립 50주년 새 아침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50년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선·후배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스스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신 가족 여러분!

화신은 1975년 창립 이래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노력으로 현재 매출 3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본연의 제품 경쟁력은 물론, 국내 신공장 건설과 해외 시장 확장을 통해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견고하게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주력 제품을 넘어 신규 제품군 확대를 통해 추가 성장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정학적 갈등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 리스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수많은 위기를 마주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차 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가파른 성장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오늘의 경영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로운 50년을 더욱 의미 있게 준비하기 위해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제조 품질 경쟁력 확보”입니다.

제조업에서 품질은 기업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의 화신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흔들림 없는 품질과 안정적인 제조 역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50년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품질 이슈 등을 겪으며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얻은 교훈과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품질은 물론, 전반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화신의 제조 품질 경쟁력은 누구 한 명, 어느 한 분야의 성과가 아닌 전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온 노하우의 집약체입니다. 조직 전체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공급, 고객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조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역량 확보”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자율주행 등 기술 진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AI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품질 혁신 등과 같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가가치는 전혀 새로운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신은 이미 다양한 전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몸에 밴 습관은 쉽게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대응 역량이 확보된다면 제품의 신뢰도는 물론, 고객 만족과 기업의 경쟁력 또한 함께 높아지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화신이 반세기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의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현재 전 산업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는 AI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65%가 AI를 도입하였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화신 또한 일부 분야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도입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업무 스킬과 전문성을 토대로 충분한 학습과 준비를 거쳐 우리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신 가족 여러분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공자가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한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걸어온 5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수많은 도전과 성취의 순간이며, 때로는 고난과 배움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오늘의 화신을 만들어낸 과정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50년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더욱 큰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화신을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구성원 각자의 노력과 성장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맡은 업무 하나하나가 미래를 이끄는 작은 혁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크고 값진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상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화신 그룹의 찬란한 미래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운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대표이사 사장 정서진



INSIDE 화신

화신/화신정공 / 해외법인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01 올해의 협력사 대상 수상

2025. 1. 17일 현대차그룹에서 주관한 시상식에서 부품사 최고의 영예인 2024년 ‘올해의협력사 대상’을 (주)화신이 수상하였다. 주요공적으로 ‘품질/기술/납입 5스타 및 ESG, 안전 등 평가 우수’,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신공장 지속 투자(베터리케이스 신공장 준공, 알루미늄 로워암 경량화 개발)’,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기업 지정(한국에너지공단)’,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23년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 기업’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02 대구지방국세청장 화신 하이테크파크공장 방문

3월 24일 대구지방국세청의 중요 업체인 화신 신공장인 하이테크파크공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전재달 경주세무서장, 이광오 영천지서장 등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들과 (주)화신 정서진 대표이사, 이기동 상무, 김종필 상무 등 임직원이 함께 화신 하이테크파크공장 용접 및 조립라인 등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03 제50기 주주 총회

제50기 화신 정기 주주총회가 3월 25일 개최되었다. 이날 영업보고, 감사보고 및 부의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서진 의장은 “2025년의 미국 트럼프정부의 불확실한 변수들 속에서도 화신은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대응력을 강화하여 미국 신공장 건설과 인도 푸네 공장 진출 등 글로벌 생산거점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 법인 별 상황에 맞는 전략과 운영 안을 구축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운영체계를 정립하는 등 미래지향형 제조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04 1분기 다공장 교류회 개최

25년4월24일 화신의 신공장인 하이테크파크공장에서 다공장 교류회를 실시 하였다. 국내 화신 4개공장(언하, 봉동, 예산, 하이테크파크)과 화신정공 총 5개공장 대상으로 대표이사 정서진사장 주관으로 각 공장장, 팀장, 반장 등이 참석하여 25년 1/4분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활동을 점검 하고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자 보고회를 개최 하였다.또한 대표이사 정서진 사장은 ESG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시면서 ESG경영에 적극적인 동참과 실적인 활동이 될수 있도록 당부 하였다.



05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품기술연구회 행사

자동차 관련 기업간 교류 활동을 통한 상호 벤치마킹 및 부품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화신 기술연구소에서 제1차 부품기술연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2월 19일 오전10시부터 14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인팩, 대원산업, 태양금속공업, 광진, 세종공업 등 유수의 자동차 부품사에서 참석하여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전에는 화신 언하동 기술연구소에서 2025년 산업전망 강연과 기술 동향 공유, 오후에는 화신의 BPC 신공장인 하이테크파크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공정에 대해 견학을 하였다.



06 제37주년 노동조합 창립기념 행사

5월 4일 화신 노동조합 창립 제37주년을 맞았다.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맞아 4월 30일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마련 되었다. 이번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공장별 회사 식당에서는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뷔페를 제공하였으며 직원들은 업무 중 잠시나마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중식시간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여 동료들과 함께 축하하며 점심 식사를 즐겼다.



《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07 제21회 우석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제21회 우석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대학생은 5월 21일 (주)화신 기술연구소 우석홀에서 60명에게 2억 1천만원, 중·고등학생은 5월 26일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92명에게 6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우석장학재단은 2005년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현재 화신그룹 정서진 대표이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재단은 총 72억2천3백만원을 출연 받아 3,014명에게 25억 5천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학생들을 선발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08 환경보호 캠페인

화신은 전사 전략과제인 ‘글로벌 저탄소 경영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6월 1일부터 영천 소재 3개 공장(언하, 봉동, 하이테크파크)에서 진행 중이다. 주요내용은 “잔반 남기지 않기, 1회 용품 줄이기, 개인 택배 자택으로 받기, 개인 텀블러 사용 생활화,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 6가지를 핵심으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 HWASHIN NEWS _ 화신 예산공장뉴스

01 예산공장 자체 소방훈련 실시

충남지역 기업체들의 잦은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화신 예산공장에서는 6월9일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구역별 임무 및 대피 방법에 대하여 훈련 및 숙지하는 기회가 되었다.



《 HWASHIN NEWS _ 화신정공 뉴스

01 화신정공 제 15기 정기 주주총회

3월 26일 수요일 화신정공 제 15기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었다. 주주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영업 보고, 감사보고 및 부의안건 심의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는 회사의 향후 비전 공유, 그리고 주주와의 신뢰 강화라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HWASHIN NEWS _ 해외법인 뉴스

01 브라질법인 - 독감 예방 접종 실시

5월 16일 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 실시하였다. 회사 진료소에서 총 93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예방 접종 외에도 관리팀에서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02 베트남법인 - 여름 합동 하계 단합대회 실시

6/9~6/10, 1박 2일간 임직원들의 재충전과 휴식을 지원하는 하계 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2025 도로교통정책 알아보기

도로교통법은 매년 소리 없이 바뀝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반 운전자들은 법 개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그게 벌금이었어?",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야?"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2025년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고령운전자 증가, 자율주행기술 발전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맞춘 규제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운전자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2025년 교통법규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글/사진 자율제조개발팀 서성연 주임



보행자 보호 강화 — ‘차보다 사람이 먼저’ 시대 본격화

횡단보도 일시정지 범위 확대

그동안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어도 실제로는 적용이 느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횡단보도 접근 시 보행자가 근처에만 있어도 반드시 감속 또는 정지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blog.ibk.co.kr/2754>

① 주요 변경 사항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일시정지 의무 유지
- 신호등 있는 교차로 우회전 시 : 보행자가 진입 또는 대기 중이면 정지
-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을 경우에도 감속·정지 의무 적용

② 위반 시 처벌

- 범칙금 6만원 (승용차 기준)
- 벌점 10점 부과
- 반복 위반 시 보험료 상승,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가중

③ 실생활 사례

“아직 건너지 않았는데 왜 서야 하나요?”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보행자의 횡단 의사’가 있다고 간주
특히 고령자/어린이/장애인 경우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

스쿨존 불법주정차 규제 대폭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29/120924616/1>

①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과태료 3배 인상: 일반 도로 대비 12만원 → 18만원
- 스쿨존 이면도로도 단속 적용 확대
- 상습 위반차량은 과태료 외 별도의 행정처분 검토

② 단속 확대 배경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학부모 차량의 불법 정차로 인한 시야 확보 실패에서 발생

③ 추가 조치

- 경찰·지자체 합동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 민원신고앱 신고 건수 지속 증가

개인형 이동수단(PM) — 전동킥보드 이제는 ‘자동차급’으로 규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 위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위험도 급증, 규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GOWIY1YWJ>

스쿨존 불법주정차 규제 대폭 강화

① 변경 사항

-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
- 원동기면허 소지 또는 안전교육 이수증 필요
- 16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 금지

② 교육이수증 인정 배경

기존 면허시험보다 실질적 교통안전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
→ 안전교육 이수로 대체 허용



출처: <https://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18054>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강화

① 헬멧 착용 의무

- 미착용시 과태료 5만원
- 동승자도 착용 의무

② 사고 시 과실 비율 영향

헬멧 미착용 사고 시 운전자 과실 20~30% 가중 적용 판례 확산

② 야간 등화장치 의무화

- 전조등·후미등 미점등 시 과태료 5만원
- 단속은 경찰 외에도 지자체 단속요원 상시 가능

PM 전용 보험 도입 논의 중

현재 일부 보험사가 임의상품으로 판매 중이나, 정부 차원의 의무 가입제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대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GOWIY1YWJ>

음주운전 방조범 본격 처벌

① 방조 기준 확대

-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도록 방치
- 운전하도록 차량 열쇠 건네준 경우

②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③ 실질적 적용 사례

- 전조등·후미등 미점등 시 과태료 5만원
- 회식 후 운전대를 맡긴 상사나 동료 방조범으로 입건 증가

반복 음주운전 무조건 실형 추세

- ① 2회 이상 적발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②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비율 대폭 증가
- ③ 재범률 40%를 넘어서며 사회적 경각심 고조

차량 견인비 및 경제적 부담 상승

- ① 견인·보관·반출 전액 본인 부담
- ② 일부 보험사의 음주사고 담보 제외 확대
- ③ 1회 적발로 수백만원 손실 발생 가능

고령운전자 · 자율주행 시대 — 교통안전 시스템 대전환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062>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① 주요 변경 내용

연령	기존 갱신 주기	2025년 변경 갱신 주기
70세 이상	5년	3년
75세 이상	3년	2년

② 인지기능검사 도입

- 치매 · 인지저하 의심 시 면허 유지 제한
- 갱신불가 결정 비율 지속 증가

③ 배경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 비율 20% 이상 상승



출처 : <https://blog.naver.com/wemakenews/223902364814>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본격 확대

① 적용 구간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중심
- 2025년 중 시범운행차량 1000대 이상 운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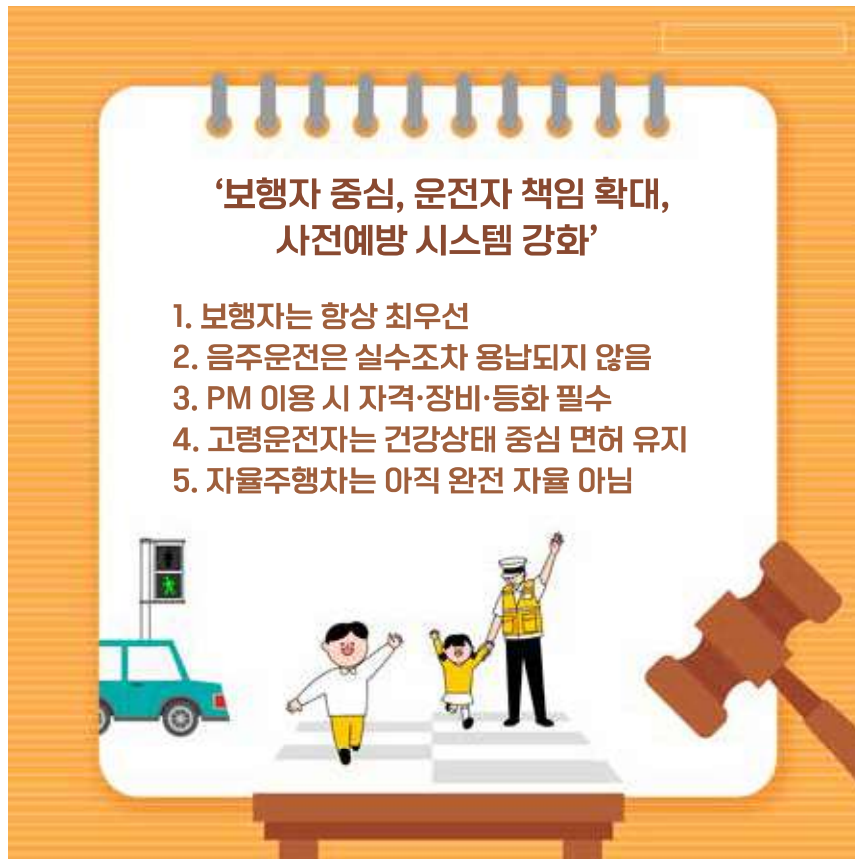
② 조건부 자율주행 (레벨3)

- 비상상황 시 수동개입 필요
- 제조사·운전자·보험사 간 책임배분 기준 수립 중

③ 예상 향후 변화

- 자율주행차 보험료 별도 체계 도입
- 시스템 오류 사고 판례 축적 중

교통법규는 매년 ‘사고예방형’으로 진화 중이며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 중심, 운전자 책임 확대,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로 요약됩니다. 법률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이 5가지만 떠올린다면, 새로운 교통법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규 준수는 결국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탁구, 탁 치는 순간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글/사진 제품설계1팀 손보경 주임





출처 :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52/0001424632>

탁구는 어떤 종목인가요?

탁구(Table Tennis)는 탁구대 위에서 두 명의 선수 또는 두 개의 복식 팀이 라켓과 공을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은 엔드 라인 뒤 탁구대 위에서 떨어지는 공을 쳐서 자신의 코트에 한 번만 튀게 한 후 상대방 코트로 보내야 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실점합니다. 일반적으로 탁구 경기는 속도가 빨라 순발력이 요구되며, 숙련된 선수는 스핀을 통해 공의 궤도를 조절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탁구의 역사

탁구는 1880년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이 저녁 식사 후 잔디 테니스를 대체하기 위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해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 한 줄이 네트가 되기도 하고, 샴페인 코르크의 둥근 윗부분이 공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시가 상자 뚜껑이 라켓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락은 점차 ‘위프윙프(whiff-waff)’ 또는 ‘핑퐁’이라는 이름으로 퍼졌고, 1901년에는 셀룰로이드 공과 고무 러버 라켓이 등장하며 현대적인 스포츠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에서는 비공식 대회가 열렸고, 1926년에는 국제탁구연맹(ITTF)이 설립되며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탁구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이후 점수 체계와 장비 규정 등이 개정되며 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로 발전했습니다.



▲초창기위프하프라켓 및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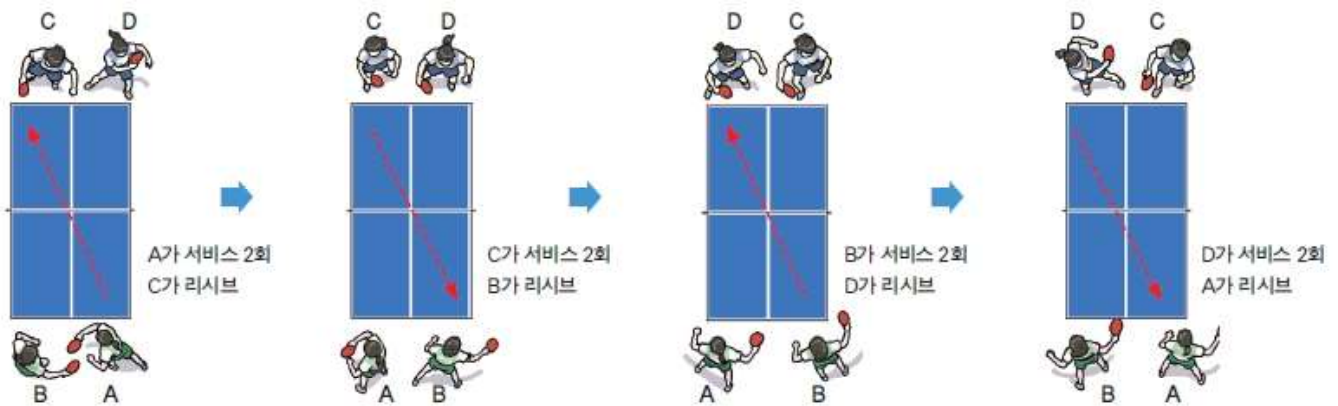
출처 : <https://blog.naver.com/fromtakgu/221308039950>

탁구의 경기 방법 및 규칙

경기 종목에는 단식, 복식, 혼합 복식 등의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단체전은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4단식과 1복식의 경기를 하며 각 선수는 최대 두번의 개인전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승패는 7게임 중 4게임 또는 5게임중 3게임을 이기면 승리합니다. 각 게임은 최소 2점의 차이를 두고 11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하는데, 10:10 동점에서는 2점 차가 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합니다. 경기 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게임이 끝나지 않으면, 그 게임과 이후의 게임들에 경기 촉진 제도를 적용합니다. 서브는 교대로 한번씩 실시하고, 리시브하는 선수나 팀이 13번째 리턴에 성공하면 1점을 얻습니다.

2점을 득점할 때마다 서브를 교대하는데, 10:10 동점 이후와 경기 촉진 제도가 적용되면 1점마다 교대합니다.



복식 경기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오른쪽 코트에서 대각선의 상대 코트로 서비스해야 합니다. 복식에서 리턴의 순서는 서버→리시버→서버의 파트너→리시버의 파트너→서버→리시버와 같은 순서대로 리턴을 해야합니다.

탁구의 서비스 규칙

- 1 탁구대보다 높은 위치에서 손바닥을 펴서 공을 위에 놓아야 하며, 옷이나 신체로 공을 가려서는 안된다.
- 2 수직에 가깝고 회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공을 손에서 16cm이상의 높이로 토스해야 한다.
- 3 토스된 공이 정점에서 내려올 때 쳐야 하며, 공은 탁구대의 위와 뒤쪽에 있어야 한다.
- 4 서비스는 2점마다 교대하는데, 듀스와 경기 촉진 제도가 적용되면 1점마다 교대한다.
- 5 단식 경기에서는 서비스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코트 어느 곳에서도 서비스 할 수 있고, 상대편 코트의 좌우 어느 쪽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하지만 복식 경기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코트 오른쪽에서 상대편의 대각선 왼쪽 코트로 서비스하여야 한다.



탁구의 득점 유형

탁구에서 득점은 자신의 코트에 바운드된 공을 쳐서 자신의 코트에 닿지 않고 상대편 코트에 닿도록 해야합니다.

1점을 득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❶ 상대가 올바른 서비스나 리턴을 하지 않았을 때
- ❷ 상대가 친 공이 자신의 코트에 닿지 않고 엔드 라인을 넘어갔을 때
- ❸ 상대의 신체 또는 라켓 등이 네트에 닿았을 때
- ❹ 상대가 두 번 연속으로 공을 쳤을 때
- ❺ 상대의 라켓을 잡지 않은 손이 탁구대에 닿았을 때
- ❻ 복식 경기에서 상대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공을 쳤을 때
- ❼ 촉진 제도에서 리시브하는 선수나 팀이 서비스 리턴을 포함하여 13번의 올바른 리턴을 했을 때

탁구의 그립법

탁구의 그립법(라켓 잡는법)은 경기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탁구에서는 크게 펜 홀더 그립, 웨이크 핸드 그립 이 두가지 그립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 펜홀더그립



▲ 웨이크핸드그립

출처 : <https://m.blog.naver.com/tak9in/220886175638>

- ❶ 펜 홀더 그립: 한쪽 면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앞면에 걸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뒷면을 받쳐 주어 펜을 잡듯이 쥐는 그립법 입니다. 펜 홀더는 네트 플레이를 하거나 짧은 공을 처리하거나 민첩한 풋워크를 이용한 포핸드의 연속 공격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라켓의 한쪽 면만 사용하기 때문에 웨이크 핸드 그립에 비해 좌우의 타구 범위가 좁은 것이 단점입니다.

② 웨이크 핸드 그립: 양쪽 면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지를 펴고 악수하듯이 그립을 잡습니다. 라켓의 양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의 이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체력 소모가 적지만, 몸 쪽 공 처리가 어렵고, 네트 앞의 짧은 공을 처리하는 데 불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립은 각자 자신의 체력과 신체 활동 능력에 알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탁구의 경기 유형

① 드라이브 전술형: 현대 탁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전진이나 중진에서 평면 러버를 사용하여 공에 강한 전진 회전을 거는 드라이브 스윙을 중심으로 플레이합니다. 전신을 사용하여 강한 회전을 걸고, 풋워크를 자주 구사해야 하므로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알맞습니다.

② 전진 속공형: 주로 평면 러버를 사용하며, 전진에서 자세를 잡고 상대방의 공을 재빨리 받아쳐 점수를 획득합니다. 이때 되도록 공에 회전을 걸지 않습니다. 또한, 3구째에 공격하는 등 빠른 단계에 공격을 시도하여 랠리를 오래 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재빨리 공을 받아 치는 반사 신경과 순발력, 득점력이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전술입니다.

③ 전진 공수형: 전진에서 자세를 잡고 빠른 시점에 공을 받지만, 전진 속공형처럼 속공에만 치우치지 않고 공수의 균형을 생각하며 플레이하는 전술입니다.

④ 수비형(커트 전술형): 중진과 후진에서 커트 기술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전술입니다. 이 전술의 역사는 탁구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공의 크기 변화와 서비스 기술의 혁신에 영향을 받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커트 기술을 익히면 실전에서 항상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성출판사티창백과
<https://dic.kumsung.co.kr/web/smart/detail.do?headwordId=11137&findCategory=B002009&findBookId=35>

화신 탁구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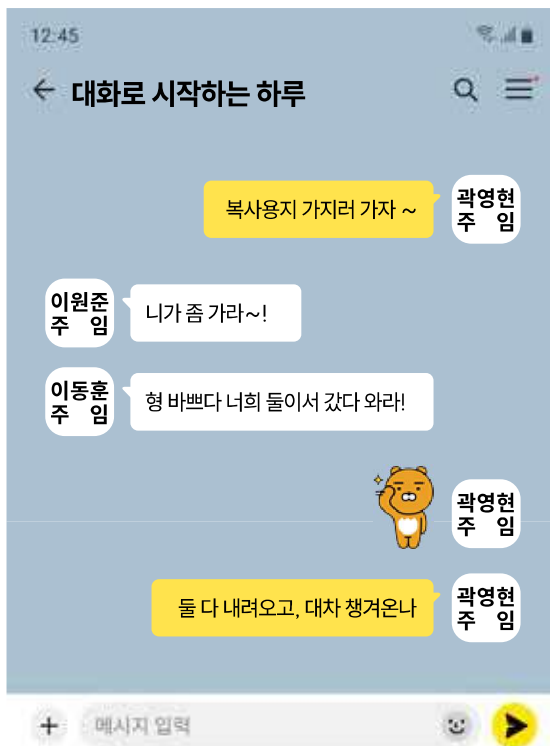
화신 연구소 5층 체육관에 탁구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 화신 탁구 동호회 회원들은 점심시간마다 5층에 올라가 탁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여 인원이 많아져서 복식 경기로 돌아가며 더 활기차게 즐기고 있답니다. 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잠시 들른 직원들도 함께 탁구를 즐기며 소소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탁구 대회도 개최되어 즐겁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서로 실력을 겨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탁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탁구 동호회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지어 회사 밖에서도 근처 탁구장을 찾아가며 틈틈이 라켓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놀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해보니 빠른 반응과 집중력을 요하는 매력적인 스포츠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점심시간 30분, 가볍게 한 판 즐기며 탁구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한명은 밖에 우리는 함께

글/사진 내부회계감사팀 곽영현 주임



2023년 1월, 대규모 공개채용이라는 설렘 속에 40명이 넘는 동기들과 함께 ‘화신’이라는 이름 아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사보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함께 남아 있는 동기의 수는 절반 가량인 20여 명.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동기 중에는 과거 ‘화신영리더’ 인터뷰에 “팀원 간 화합과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던 재경팀 동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볼 수 없지만, 그 인연은 여전히 소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동기’라는 이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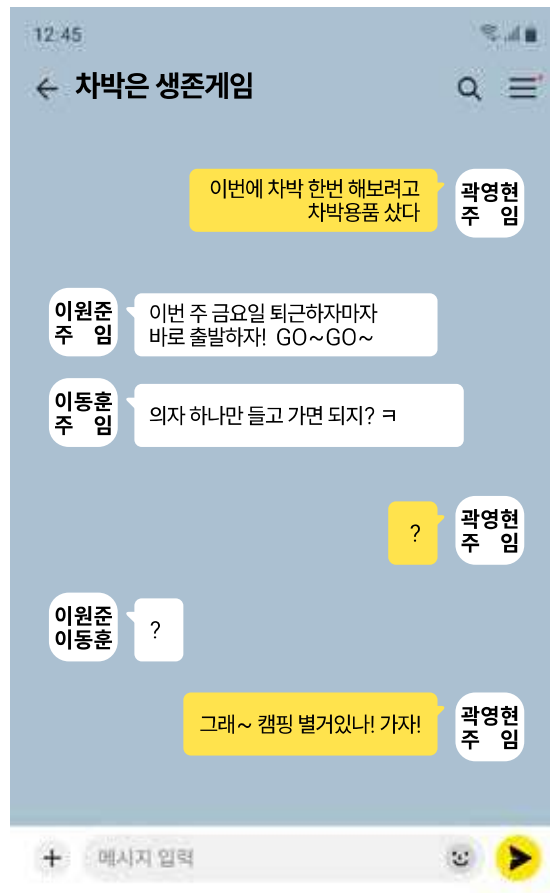
저희 기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신입사원 연수원 없이, 기술연구소 1층 우석홀에서 약식으로 5일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인원이 많았던 터라 조원 외에는 깊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적었고,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각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았던 동기들 대부분은 ‘중고신입’이었고 출중한 경험과 실력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연구소 2층에는 총 4개의 팀이 있었고, 그 중 내부회계감사팀, 재경팀, 글로벌기획팀에 각각 신입 한 명씩 배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중에는 대화 한 번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던 사이였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동기’이자 ‘동갑’이라는 공통점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져 주중에는 점심 후 한여름 무더위 한겨울 강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며 산책하고 제 자취방을 아지트 삼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엔 친구처럼. 맛집 투어는 기본, 볼링, 당구, 노래방, 보드게임카페, 날 좋을 땐 캠핑부터 포항과 부산으로의 바다 여행, 겨울엔 스키장 등 회사 밖에서도 늘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팀에서 근무하며 겪은 경험과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했고, 그 덕분에 낯선 회사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난적은 처음이었고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회사생활도 꽤 즐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계획 차박, 현실은 생존게임

패기 하나로 떠난 금요일 퇴근시간. 당근에서 산 차박텐트는 제대로 설치도 못한 채 천장이 무너졌고, 준비한 조명은 어두워서 휴대폰 라이트를 더 의존해야 했습니다. 술 안주로 산 닭꼬치는 호일에 싸서 구워 보려다 잘 안익는다고 불에 넣었다가 숯덩이가 되어버렸고, 차 트렁크에 세 명이 잘 수 있을 거라는 무모한 믿음은 결국 트렁크에 한 명, 맨 바닥에 두 명. 야전침대, 침낭, 베개도 없이 맞이한 밤은 육체적으로는 고됐지만, 동기들과 다녔던 어떤 여행보다 가장 유쾌하고 인상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차박 감성



현실은 이렇게 무참하게 후줄근~ 앞 페이지 제품이랑 동일한 제품임..ㅎ

회사는 달라도 사라지지 않는 인연

평소처럼 회사생활을 하던 중 일 없으면 절대 휴가를 쓰지 않던 한 동기가 평일에 휴가를 자주 내기 시작하더니 다른 회사의 최종 면접을 보고 왔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매년 취업시장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도 퇴근 후 열심히 준비한 그 동기의 근면성실함에 진심으로 응원하였고 곧 그 동기는 꿈에 더 가까운 길을 선택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라는 연결고리로 만난 인연은 대부분 퇴사 후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앞전 회사의 동기들과는 자주 연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는 여전히 퇴근 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더욱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보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 동기들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불과 한달 전 떠난 차박 리벤지는 일전의 여행들을 교보재 삼아 다양한 장비부터 이제는 익숙해진 텐트피칭은 일전의 서툴렀던 신입사원의 티를 어느정도 벗어나 어설프지만 화신의 일원이 된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차박 리벤지(?) 대~~성공

앞선 이 이야기는 저희 셋만의 이야기는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선후배님들 중에서도 지금 옆에 있는 동기와 앞으로 10년, 20년을 함께할 것이고, 누군가는 회사를 떠나거나 떠나 보냈지만 여전히 인연을 이어가고 그 우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화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인연. 그 이름을 넘어 지속되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한 명은 회사 밖에 있고 앞으로의 여정도 불확실 하지만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있고 누구보다 깊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동기, 동료들과 함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 즐거운 회사생활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GO!



화신의 소중한 가족 반려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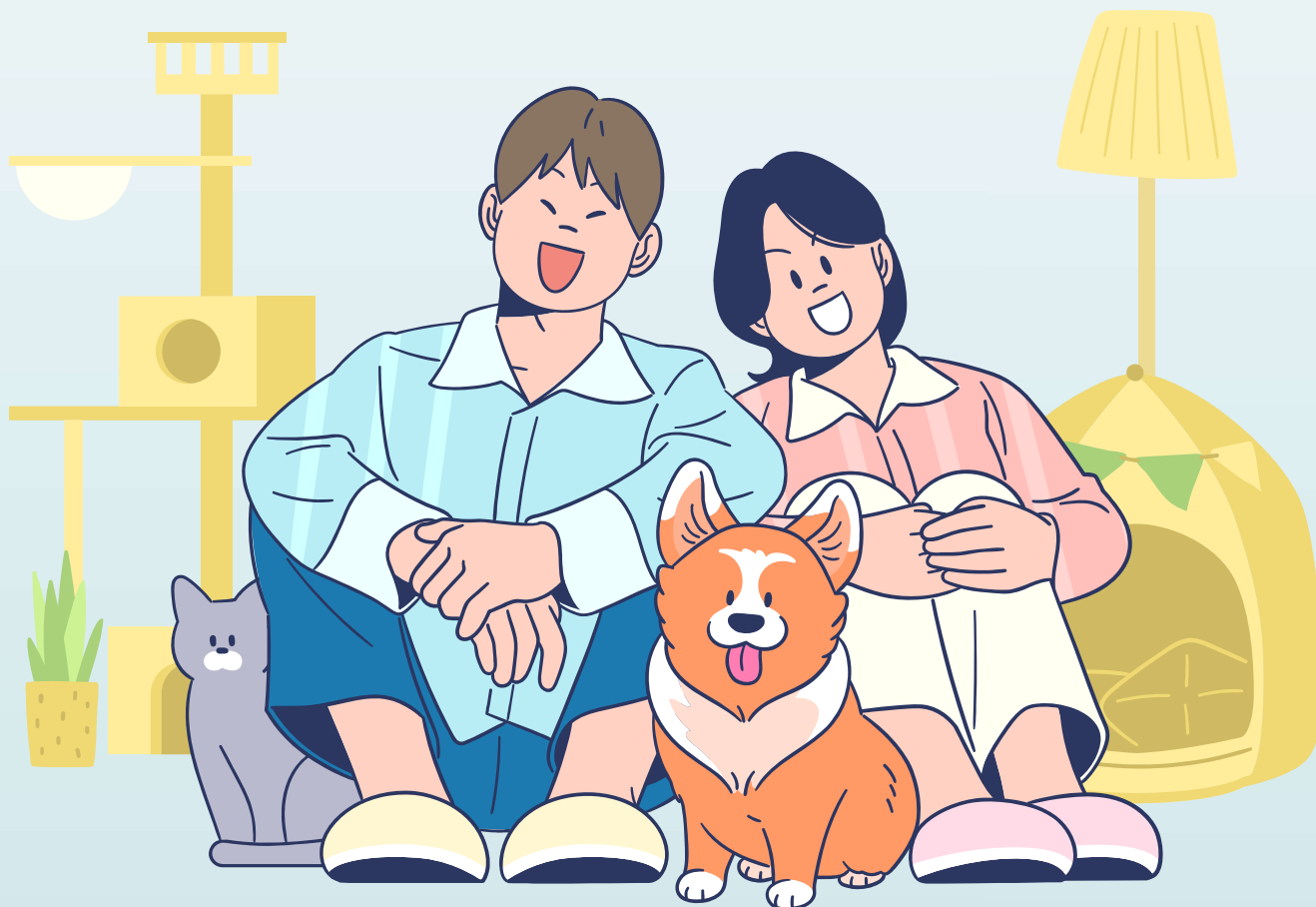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회사 구성원들의 하루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반려동물.

일상의 피로를 말없이 어루만져주는 그들 덕분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직원들의 소중한 반려동물들을 소개합니다!

글/사진 생관자재팀 고대호 주임





고대호 주임 반려묘 - 나미

고대호 주임

맑은 눈동자와 초코색 포인트가 매력적인 고양이, '나미'를 소개합니다. 사뿐사뿐 걸어와 조용히 옆에 앉는 게 특기이고, 사람 기분을 잘 읽는 섬세한 성격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건 햇살 드는 창가에서 낮잠 자기, 그리고 간식 시간 전의 눈빛 공격! 낮가림은 좀 있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애교 폭탄을 퍼붓는 스타일입니다.

본가에 살고 있어 자주는 못 보지만, 가족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우리 집 귀염둥이랍니다.

남성현 주임

우리 집 고양이들을 소개할게요!

쿠키와 레오는 올해 두 살 된 고양이예요. 짧은 다리와 통통한 몸, 귀여운 눈망울로 가족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매력덩어리들이죠.

여동생과 제가 취업으로 본가를 떠난 뒤, 부모님께서 꽤 허전해 하셨는데요, 다행히도 그 빈자리를 쿠키와 레오가 톡톡히 채워주고 있어요.

이제는 쿠키와 레오 덕분에 본가가 한결 따뜻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스러운 막내들, 쿠키와 레오예요!



남성현 주임 반려묘 - 쿠키와레오

여기서 잠깐, 고양이 탐구생활

#고양이는 사람을 큰 고양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이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종이라기보다, 덩치 큰 '느린 고양이' 정도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부비거나 몸을 문지르는 행동은 '동료'나 '가족'에게 하는 애정 표현이에요.

#고양이는 이름을 알아들어요 (모른 척할 뻔)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자기 이름과 다른 단어를 구분할 수 있고, 이름을 들으면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단지 자기가 원할 때만 반응할 뿐이죠. (고양이답죠?)



정대현 사원 반려견 - 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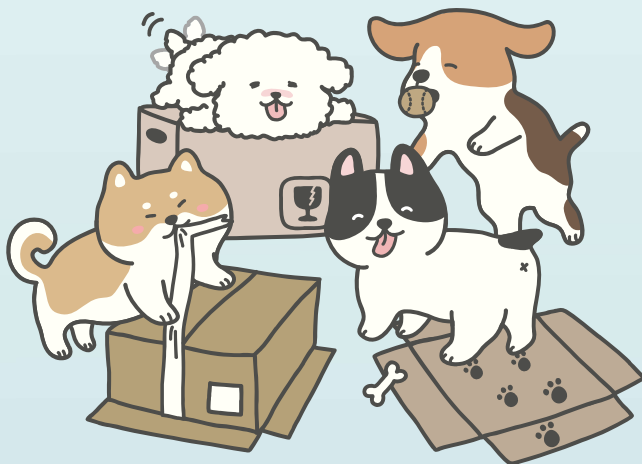
정동하 조장 반려견 - 정둘리



윤유섭 사원 반려견 - 흰둥이



김치훈 책임 반려견 - 라떼



정대현 사원

우리집 사고뭉치 꿈이에요.

토이푸들이고 올해 10 살 입니다. 긴 귀가 매력 포인트인 암컷 강아지 입니다.

생긴거랑 다르게 아주 꿀통이죠. 하루에 한번은 꼭 혼나는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서면 와서 애교부리는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지금 처럼 활발하고 건강하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하 조장

정가네 막내 정둘리예요.

시골 할아버지 마당에서 코짹짹이 아가일때 데려와서 3년 넘게 온 가족 사랑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언제나 가족들의 활력이 되는 사랑스런 막내 아들이랍니다.

윤유섭 사원

저희 집 유일한 아들이자 막내, 흰둥이를 소개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크게 아파서 모두를 걱정시켰지만, 씩씩하게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기특한 강아지예요.

성격은 천방지축 개구쟁이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우리 집 분위기메이커랍니다.

김치훈 책임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라떼입니다.

차 안에서도 애교 폭발, 사랑스러움은 과속 중이에요. 태어난 지 3년 되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제일 좋아하는답니다.

라떼야, 아프지 말고 오랫동안 함께하자♥

강아지 탐구생활

#강아지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사람처럼 강아지도 앞발을 더 자주 쓰는 쪽이 있어요. 장난감을 줄 때 어느 발을 먼저 쓰는지 보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컷은 왼발잡이, 암컷은 오른발잡이가 많다는 통계도 있어요.)

#꼬리 흔들기 = 무조건 기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꼬리를 흔들 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오른쪽으로 빠르게 흔들면 긍정적 감정, 왼쪽으로 천천히 흔들면 불안이나 경계심일 수 있어요. 그냥 ‘흔든다’는 걸로만 판단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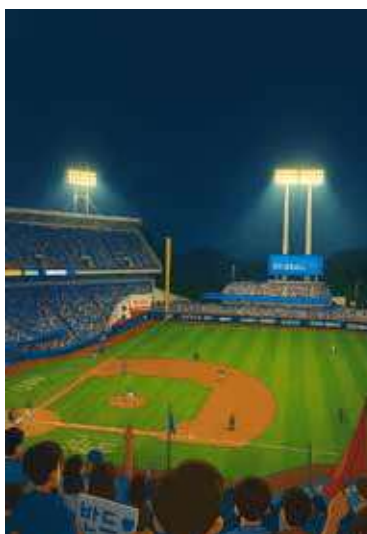


반려동물은 말은 없지만, 우리가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위로가 되어줍니다.
사내 모든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이번 사보가 따뜻한 연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여운토끼들 #토끼일상 #뒷모습도귀여워

❤️ 좋아요



#디즈니풍 #라이온즈파크

❤️ 좋아요



#소금 #검은콩

❤️ 좋아요



#우로지 #노을맛집

❤️ 좋아요



#운치있는날 #물안개

❤️ 좋아요



#다윗고놀이도 #다윗으면안됨 #어디갔노

❤️ 좋아요



#워커홀릭 #예비군 #점심시간

❤️ 좋아요



#심슨작화 #시 #아쿠아리움

❤️ 좋아요



#여름휴가 #어디로

❤️ 좋아요



#퍼스널컬러알아보기

❤️ 좋아요



#유럽여행 #스위스마스코트 ❤️ 좋아요



#피사의사탑 #어화등등 ❤️ 좋아요



#있잖아 #사실 #하늘찍은거야 ❤️ 좋아요



#저스트런 #오늘도 달린다 ❤️ 좋아요



#반반족발 #동기회식 ❤️ 좋아요



#탁구동호회회식 #섞어밀면추천 ❤️ 좋아요



#지리산 #지안재 #나는 자연인이다 ❤️ 좋아요



#즐리개 #줄음운전금지 ❤️ 좋아요



#지브리풍 #AI ❤️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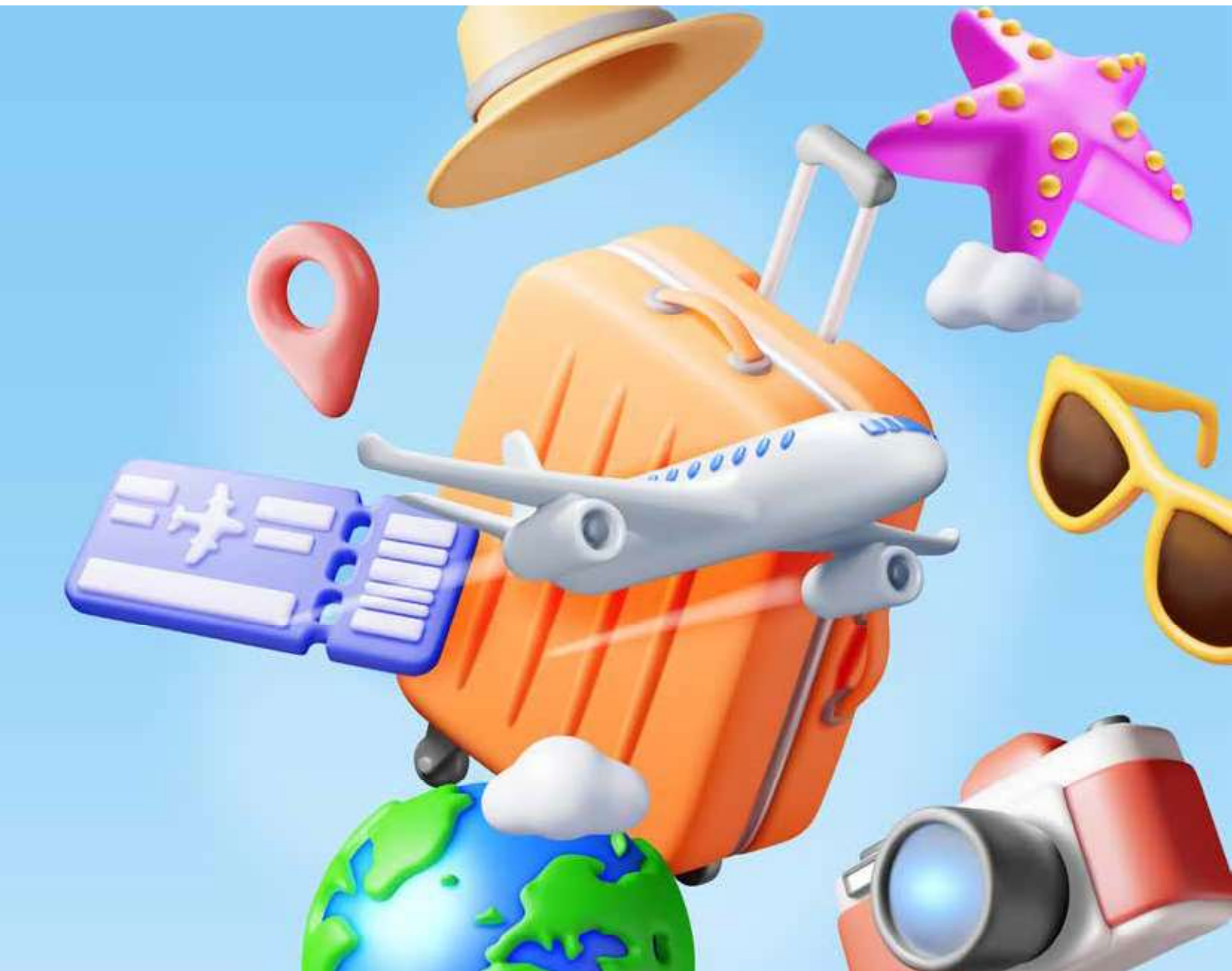
#파이브가이즈 ❤️ 좋아요



#풍경맛집 #푸른하늘 ❤️ 좋아요

아내와 함께하는 유럽 남편의 생존 여행기

글/사진 신차품질팀 최주호 주임





프롤로그 - 동행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며

‘동행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며 떠난 이번 유럽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꿈꿔온 여행에 동행자로 참여하면서, 함께 걷고 함께 보며 동행의 진정한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따라간다’는 생각에 살짝 부담도 되었습니다. 평소 차로 2시간만 가도 힘들어하는 제가, 유럽으로 간 것과 하루 3만 보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거듭할수록 걷는 행위 자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고, 걸음마다 서로의 가치관을 알아가며 마음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글은 그렇게 시작된 우리 부부의 소소한 에피소드와 함께, ‘동행’의 참된 가치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한 ‘남편의 생존기’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함께’의 소중함을 담은 여행기입니다.

파리 - 사랑보다 더 힘든 첫걸음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에 도착한 첫날, 우리 부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는 야경을 보며 손을 맞잡고 세느 강변을 걷는 순간을 꿈꿨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과 몽마르트 언덕까지. 대중교통과 도보로 오가며 1박 2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더니 어느새 발바닥은 타들어가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신이 나 있었지만, 저는 어느 순간 ‘생존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행은 배려’라는 것ですよ. 걷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아내는 걷는 속도를 맞춰 주고, 중간중간 쉬어가자고 권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느꼈고, 그렇게 파리의 거리를 함께 걸으며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밤이 되면 근처 마트에서 산 물과 젤리, 스낵 등을 나누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은 피곤함을 잊게 해주었고, 파리에서의 첫걸음은 힘들었지만 우리 관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라켄 – 발의 고통을 잊고, 잊을 수 없는 자연

스위스 인터라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호수와 하얀 설산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3만보 도전'은 여기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융프라우산으로 올라가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고도와 긴 이동 시간이 발바닥을 불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청명한 공기와 눈 앞에 펼쳐지는 크고 넓은 눈의 자연 속에서 그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걷다 보니 힘든 순간마다 서로를 격려하게 되었고, 말없이 주고받는 눈빛과 손길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전하는 위로와 격려가 '동행'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ですよ. 인터라켄에서의 여정은 자연과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베네치아 – 길 잃은 남편, 길을 아는 아내

물이 가득한 베네치아는 ‘길 잃기 좋은 도시’라는 별명을 실감하게 한 곳입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과 끝없이 이어진 다리들 사이에서 저는 금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된 여정에 발바닥은 불타고 집중력은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내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현지인처럼 능숙하게 골목을 찾아내고, 헤매는 저를 차분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당황한 저를 다독이며 마트에 가서 음료도 사주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신뢰와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동행’에서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고, 함께라면 길을 잃어도 두렵지 않다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베네치아의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신뢰를 쌓았습니다.



피렌체 – 르네상스 예술과 미식에 물들다

이탈리아 여행의 두 번째 여정지, 피렌체는 수많은 성당과 유럽 전통 건축물 속에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간직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을 거닐며 느껴지는 예술의 깊이와 시간의 흔적은, 함께하는 여정에 또 하나의 감동을 더해주었습니다.

피렌체 인근의 피사도 함께 둘러보았는데, 기울어진 탑 앞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피렌체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아내와 나란히 걷던 골목길, 그 속에 남겨진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거리의 풍경은 자연스럽게 우리 둘 사이의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우피치 미술관과 거리의 작은 갤러리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행 도중 예상치 못한 그림 사기단을 만나 당황하는 아내를 보호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속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엔 느끼기 어려운, 동행의 책임과 보람을 새삼 깨달았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저녁 한 끼. 향긋한 올리브 오일과 신선한 채소, 육즙 가득한 이탈리아 전통의 T본 스테이크는 그날의 피로를 잊게 할 만큼 만족스러웠고, 그 식탁 위에서 나눈 소소한 이야기들은 피렌체에서의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예술, 음식, 그리고 대화. 같은 곳을 걸어도 서로 다른 감상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바로 ‘함께하는 여행’의 진짜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로마 - 고대 유적 속에서 깊어진 공감

피렌체를 떠나 도착한 로마는 고대와 현대가 나란히 살아 숨 쉬는 도시였습니다. 웅장한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유적 앞에 서자,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들의 삶과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고대의 숨결과 역사적 깊이에 매료되었고, 아내는 분주한 거리의 작은 상점들과 골목길 산책 속에서 지금의 로마를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깊은 인상을 남긴 순간은 바티칸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성경 속 이야기를 배경으로 세워진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아내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어도,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여정 속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그 순간은 말없이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자’는 다짐은 여행을 넘어, 삶을 함께하는 또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행 중엔 로마의 디저트, 젤라또와 티라미수, 그리고 소꼬리짬, 유럽 양식 같은 전통 음식들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기쁨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졌고,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사와 감상의 방식은 달랐지만,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서 함께 걸었던 우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하진 않아도,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로마에서의 동행. 그 하루는 우리 부부가 ‘함께 살아간 다’는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에필로그 – 발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발은 무척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루 3만 보가 넘는 길을 걷는 동안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 부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값진 배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걷는 동행, 가족과 함께하는 동행, 그리고 나 자신과의 동행까지 모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힘이 되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여행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동행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이해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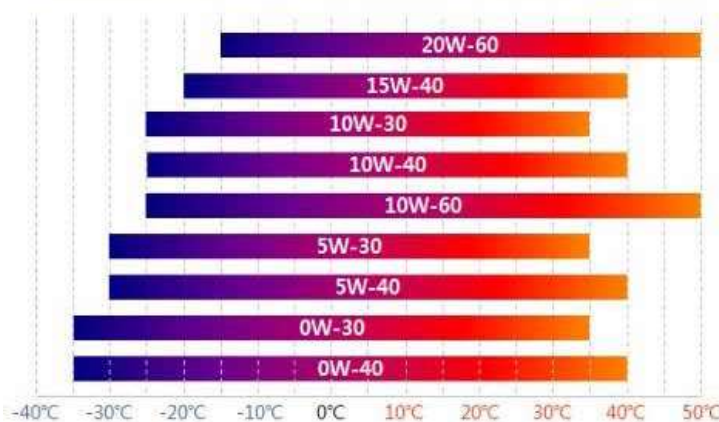
자동차 오일 관리의 중요성

글/사진 전략마케팅팀 황상원 주임



엔진 오일

자동차 내 다양한 오일 종류 중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엔진오일입니다. 엔진오일은 엔진 내 윤활, 냉각, 청정, 밀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엔진오일을 분류하는 가장 핵심적인 척도는 점도, 규격입니다. 엔진 오일의 점도는 ○W-○○로 표기합니다. 이때, 전자는 저온 점도, 후자는 고온 점도를 나타냅니다. 알파벳 ‘W’ 앞의 숫자가 낮을수록 저온 환경에서 오일의 유동성이 우수하여 동절기에 점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온 점도의 경우, 엔진의 성능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온 점도가 높을수록 고회전 등 가혹 조건에서도 점도를 유지하여 고출력 엔진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엔진 부하가 증가하여 연료 소모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온 점도가 낮으면, 엔진 부하가 감소해 연료 소모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으나, 가혹 주행 시 점도를 쉽게 잃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본인의 운전습관, 주행 환경, 권장 규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오일의 점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일 교환주기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행 환경이 시내 위주라면 5,000km마다, 고속도로 위주라면 10,000km마다 교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차량 외기온도에 따른 권장 엔진오일 규격

출처 : https://blog.naver.com/culater_plz/220717990173?photoView=1



▲ 엔진오일 점도표기법

출처 : <https://www.hyundai.co.kr/story/CONT00000000000115744>



미션 오일

다음으로 미션 오일입니다. 미션 오일은 엔진오일과 유사하게 트랜스미션(변속기) 내부 부품들의 윤활, 마모 및 부식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션 오일은 변속기 종류에 따라 ATF, 기어오일, DCTF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ATF는 한 가지 역할을 추가적으로 더 수행합니다. 바로 동력 전달입니다. ATF(Automatic Transmission Fluid)는 자동변속기 차량에 적용되는 오일로, 토크 컨버터 내에서 유체의 힘을 통해 엔진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미션 오일 관리 역시 엔진 오일 관리처럼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미션오일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면 ATF와 DCTF는 약 100,000km, 기어오일은 약 60,000km마다 점검 및 교환을 필요로 합니다. 최신 차종의 경우, 미션오일 게이지가 삭제되어 육안 상 점검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환 주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새미션오일]
양호/와인컬러

[3만킬로 초과]
보통/적색베이지

[5만킬로 초과]
오염/진한갈색

출처 : <https://m.blog.naver.com/metalgasket/221391930212>

	ATF	기어 오일	DCTF
적용 제품	자동(A/T)	수동(M/T)	듀얼 클러치(DCT)
점도	낮음	높음	높음
점도 지수	높음	낮음	낮음
교환 주기	약 100,000km	약 60,000km	약 100,000km

▲ 미션형식별 오일교환주기



브레이크 오일

세 번째로,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의 경우, 차량 내에서 '안전'과 가장 밀접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작동 시, 브레이크 오일이 유압을 형성하여 그 힘을 브레이크 패드에 전달하고, 이에 따라 차량이 제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미 비연방 교통국의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규격을 사용하는데, DOT 3, DOT 4, DOT 5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OT 뒤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브레이크 오일의 비등점(끓는점)이 높아져 가혹 조건에서 사용 시 유리합니다. 이처럼 브레이크 오일에 있어 끓는점이 중요한 이유는 브레이크 오일의 끓는점에 따라 브레이크의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DOT 3	DOT 4	DOT 5
건비등점	약 205°C	230°C	260°C
습비등점	약 140°C	155°C	180°C

▲ DOT 규격별 브레이크 오일 비등점



◀ 브레이크 오일 수분테스트

출처: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5>

또한, 브레이크 오일은 구성 특성상 흡습성이 강해, 점차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신품 상태에서는 황색, 이후 점차적으로 수분을 함유하면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조하면, 약 40,000km 전후로 브레이크 오일의 색상이 급격히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오일의 경우 매 40,000km마다 점검 후, 부족 또는 변색 시 교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주행거리: 30,000km 미만
수분함유량: ~1%



주행거리: 3~40,000km
수분함유량: 1~2%



주행거리: 40,000km 초과
수분함유량: 3%

▲ 주행거리에 따른 브레이크 오일 색깔 변화

출처: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5>



감속기 오일

최근 전기차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오일 교환을 할 필요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 전기차는 오일이 일절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오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동계 역시 오일을 통한 윤활, 부식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전기차 감속기 오일입니다. 감속기는 고 RPM 전기모터 출력을 감소시켜, 이를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중간 단계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감속기 오일은 감속기 내 기어 및 베어링의 윤활/냉각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속기 오일은 타 오일들처럼 독자 규격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각 제조사별로 타 오일 (ATF 등)과 범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차종 별로 알맞은 감속기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환 주기 역시 차종 별로 일부 오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감속기 오일은 대체적으로 약 60,000km 전후로 점검 및 교환을 요망합니다. 이처럼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오일 교환 주기 및 규격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차량 유지 보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감속기 구조 및 오일 산화에 따른 색상변화

출처: <https://blog.naver.com/feel-so-goods>

지금까지 자동차 내 다양한 오일의 세계, 그리고 점검 주기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오일 관리에 대해 충분히 숙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 장치인 만큼, 오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차량 유지 보수에 있어 장기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성큼 앞으로 다가온 여름휴가 기간, 오일 교환을 통해 자동차와 사람 모두가 안전한 휴가 기간을 보내는 건 어떠실까요? 다들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시고, 모두가 웃는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대세! MZ도 입는다!

2025 워크웨어 트렌드 분석

글/사진 화신정공 업무팀 양성련 주임

코로나19 이후 재택과 현장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형태가 정착되며, 일과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에 따라 '집에서도, 현장에서든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워크웨어가 주목받는다. 스트레치 소재, 통기성, *방오(防汚) 기능이 강화된 제품이 다수 출시되었으며, 유니폼과 캐주얼웨어의 경계를 허무는 디자인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회사의 현장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워크웨어의 트렌드 분석 및 누구나 워크웨어의 이해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위해 브랜드별 트렌드도 다룰 예정이다.

* 방오(防汚) 기능 :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



국내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트렌드

한국의 제조업·물류·건설업 현장에서는 기업 맞춤형 워크웨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스마트폰 수납 포켓, RFID 차단, 탈부착 가능한 기능성 재킷 등 고기능 유니폼을 도입 중이며, 환경을 고려한 리사이클 원단 사용도 확대되고 있다.

ESG와 워크웨어 – 지속가능한 선택으로의 진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ESG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2025년 워크웨어 시장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 리사이클 섬유, 친환경 염색, 탄소배출 저감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기업 조달 리스트에 오르며, 단순한 '근무복'이 아닌 '윤리적 소비재'로 재조명되고 있다.

출처: <https://workwear21.com/>

유니섹스와 다양성 존중

성별 구분 없는 유니섹스 디자인이 표준화되고 이는 성평등 인식의 확산과 함께, 워크웨어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을 반영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이 확산되며 실용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브랜드화와 기업 이미지 강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ESG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2025년 워크웨어 시장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 리사이클 섬유, 친환경 염색, 탄소배출 저감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기업 조달 리스트에 오르며, 단순한 '근무복'이 아닌 '윤리적 소비재'로 재조명되고 있다.



출처: 갈하트

워크웨어와 안전의 통합

2025년에는 안전과 워크웨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양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라 고가시성 반사띠, 방진 마스크 결합형 유니폼, 낙상방지용 하네스 연동 설계 등이 포함된 복합형 워크웨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업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복합 기능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워크웨어의 트렌드를 알아봤다면 워크웨어를 트렌드에 맞게 발맞춰가는 브랜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기 전에 필자는 패션을 전공하였다. 그 시절에는 워크웨어가 매니아층을 통한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현재는 확실히 패션에 한 섹션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앞으로의 워크웨어 행보를 기대하면서 이어, 현재 워크웨어에 선두주자로 꼽을 수 있는 브랜드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Carhartt (USA)

전통적인 내구성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방풍·방수 기능은 물론, 지속가능 원단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확산에 맞춰 친환경 전략이 강화되고 있으며, 아웃도어와 작업복의 경계를 허무는 대표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칼하트



Dickies (USA)

스트리트 감성과 작업복의 융합을 이끄는 브랜드입니다. Supreme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지속하며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디자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능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워크웨어를 대표합니다.



출처: 디키즈



ENGEL Workwear (EU)

전통적인 내구성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방풍·방수 기능은 물론, 지속가능 원단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확산에 맞춰 친환경 전략이 강화되고 있으며, 아웃도어와 작업복의 경계를 허무는 대표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엔젤



BURTLE (Japan)

여름철 냉각팬 유니폼으로 유명한 일본 브랜드로, 배터리 연동 팬, 항균·자외선 차단 기능 등 계절 대응력을 극대화한 제품이 주류입니다. 일본 내 산업복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출처:버틀



TOWORKFOR (Portugal)

유럽 디자이너 워크웨어 브랜드로, 핏과 패션성이 뛰어나며 세이프티 슈즈부터 셔츠까지 감각적인 디자인을 지향합니다. 맞춤형 유니폼 서비스로 기업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투워크포

KOLON WORKWEAR

코오롱 (Korea)

기업 맞춤형 유니폼 제작을 전문으로 하며,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과 캐주얼 요소가 조화를 이룹니다. 대기업 대상 B2B 중심 사업 확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처: 코오롱워크웨어



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18614>

2025년 워크웨어 핵심 트렌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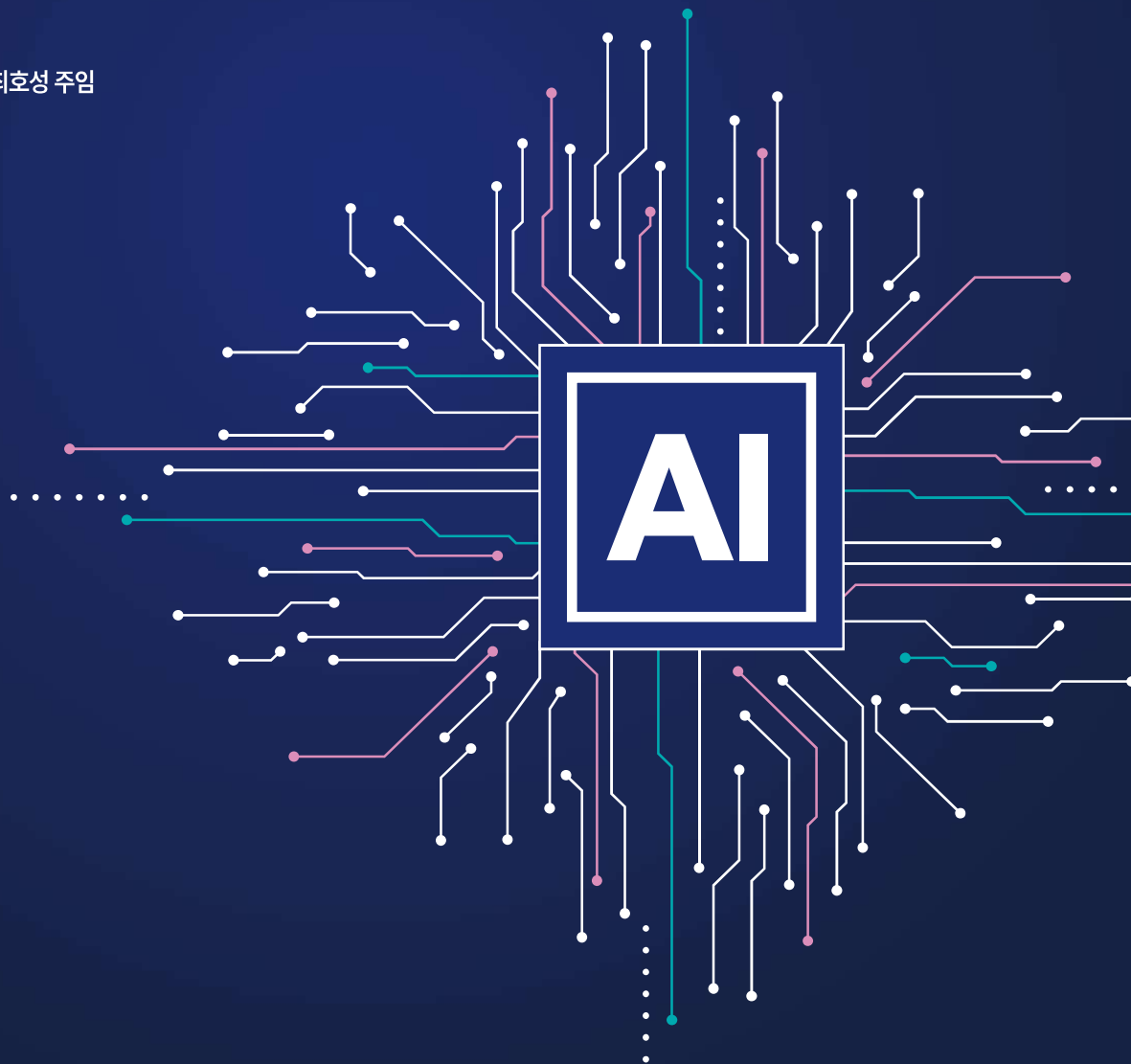
- ① 지속가능성 강화 - 리사이클 소재, 친환경 포장 등 ESG 대응 강화
- ② 디자인 고도화 - 유니섹스 및 모듈형 디자인 증가
- ③ 기능성 확대 - 냉각팬, 향균, IoT 센서 등 적용
- ④ 브랜드화 - 유니폼을 기업 아이덴티티로 활용
- ⑤ 커스터마이징 - 직군/기업별 맞춤형 대응 확대

결론으로 워크웨어는 더 이상 '작업복'이 아니다!

2025년의 워크웨어는 더 이상 단순한 보호복이나 제복에 그치지 않는다. 기능, 패션, 브랜드 정체성, 그리고 지속가능성까지 포괄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조직 문화의 일부로 진화 중이다. 앞으로의 워크웨어는 '입는 브랜드'이자 '움직이는 가치'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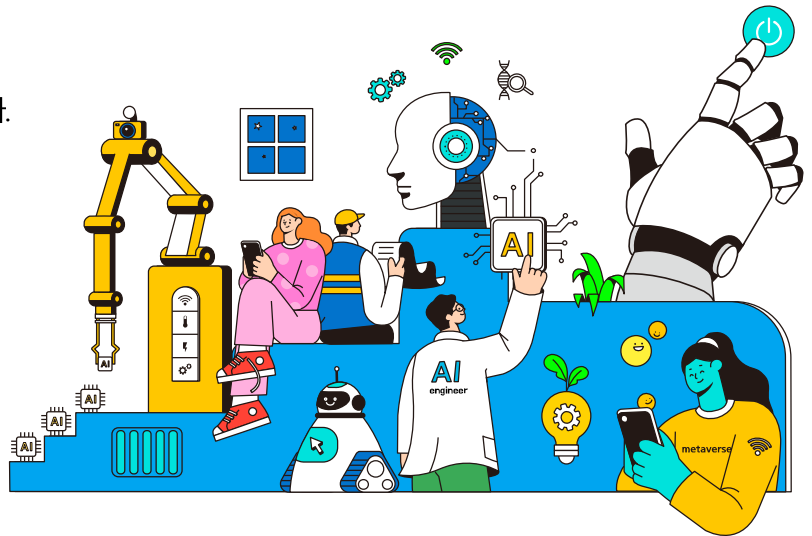
2025년 AI(인공지능) 대격변 시대

글/사진 글로벌스트럭처팀 최호성 주임



오늘날 우리는 AI(인공지능)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일상생활 속 자연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음성비서부터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문서 도우미,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 온라인 쇼핑의 맞춤형 상품 추천까지, AI는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전후로 AI 기술은 더 이상 특정 전문가만이 다루는 도구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와 직장인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활용하는 일상적 기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매일 AI와 상호작용하며, 때로는 AI의 도움을 받아 의사결정을 내리고, 콘텐츠를 즐기며,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AI가 실생활과 업무환경 전반에 통합되면서,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여 25년도의 AI트렌드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이미지 생성 AI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도 텍스트 한 줄만으로 멋진 그림이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미지 생성 AI 덕분입니다. 이제는 디자이너나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단어 몇 개를 입력하면, 마치 전문가가 그린 듯한 고품질 그림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지 신기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 실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점점 더 실용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합니다. 실제 얼굴을 업로드하고 스타일을 선택하면, 마치 애니메이션 주인공이나 동화 속 캐릭터처럼 변환해주는 AI 서비스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지브리풍 나", "픽사캐릭터 스타일의 가족사진" 등을 만들며, 친구와 공유하거나 SNS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과 콘텐츠 제작자들도 이미지 생성 AI를 점점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썸네일, 유튜브 영상의 배경 이미지, 제품 리뷰에



출처: CANVA(캔바AI)

들어갈 삽화 등을 직접 그리지 않고도, 원하는 스타일이나 구도를 AI에게 설명만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전 같으면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기거나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매했을 콘텐츠를, 지금은 몇 분 안에 AI로 해결하는 것이죠.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과학, 역사, 미술 수업에서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해 시각적 이해를 돕고, 교사들은 교재에 들어갈 삽화나 시각자료를 직접 AI로 생성해 수업에 활용합니다. 학술 포스터나 발표 자료의 비주얼 보강에도 AI 이미지 생성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용자들도 ‘그림을 못 그려도,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경험에 매력을 느끼며 AI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 생일 파티 초대장을 만들거나, 반려동물과 상상의 세계를 합성한 그림을 만들어 소장하거나, 커플 기념일에 특별한 일러스트를 AI에게 부탁하는 식이죠. 누구나 직접 제작자가 되어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AI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행위를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지 생성 AI는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편리한 툴’로 인식되고 있고, 정보 전달, 감정 표현, 창작 활동 등 수많은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사진/동영상 편집 AI

출처: <https://ndolson.com/6016>
삼성전자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AI 기술과 매우 가까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공지능 하면 복잡한 기술이나 연구용 도구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누구나 AI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GALAXY 휴대폰을 사용하는 관계로 GALAXY의 AI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 사진 속에 찍힌 낯선 사람이나 불필요한 물건을 한 번의 터치로 지워주는 '오브젝트 지우개(Object Eraser)' 기능은 AI가 이미지를 분석하고 주변 배경을 스스로 예측해서 자연스럽게 메워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능은 과거에는 포토샵 고수나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지만, 이제는 AI 덕분에 일반 사용자도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영상 속 움직임을 자동으로 슬로모션 처리해주는 '즉시 슬로모션(Instant Slow-mo)'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AI가 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까지 만들어내며 매끄러운 슬로우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도, 아이가 뛰는 장면이나 반려동물의 귀여운 순간을 영화처럼 느리게 재생하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갤럭시 AI가 탑재된 기기에서 '생성형 편집(Generative Edit)' 기능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인물의 위치를 바꾸거나 그림자를 추가하는 등 편집을 시도하면, AI가 자동으로 배경을 새로 채워 넣고 자연스러운 구도를 만들어 줍니다. 단순히 '보정'이 아니라, AI가 창작자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장면을 재구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키보드나 음성 인식 기능에서도 AI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문장의 흐름을 AI가 제안하거나, 말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보정해주는 기능이 AI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또 번역, 요약, 자동 자막, 심지어 사진 속 글자 추출(OCR) 기능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해주는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단지 몇 번의 터치와 음성 명령만으로도 사진을 예술처럼 편집하고, 영상을 손쉽게 다듬고, 일상적인 언어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AI의 혜택을 매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편하게, 마치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처럼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몰라도, 사용법을 배우지 않아도 AI와 함께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3. AI 채팅 / 챗봇(Chat Bot)

오늘날 우리는 대화형 AI, 즉 사람처럼 질문에 답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인공지능과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ChatGPT 같은 챗봇 서비스가 있지만, 그 외에도 네이버의 '클로바 X', 삼성의 '제미나이', 구글의 '어시스턴트', 카카오의 '챗봇 상담', 은행 앱의 자동 응답 기능까지, 일상에서 대화형 AI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이메일을 작성할 때 ChatGPT에게 문장 구조나 어투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다듬기 위해 AI에게 첨삭을 맡기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요약하거나 글의 핵심을 정리할 때, 또는 모르는 개념을 쉽게 설명해 달라고 AI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공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은 친구처럼 일상 대화를 나누는 AI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에게 오늘 기분이 어떨지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며, '나만의 디지털 친구'처럼 챗봇을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AI 챗봇들이 등장하면서, 특히 10대~20대 사이에서는 AI와의 대화가 하나의 '힐링 루틴'처럼 자리 잡는 모습도 보입니다.



출처: SKT

또한 고객센터나 쇼핑 앱에서도 AI 채팅은 이미 기본 기능이 되었습니다. 쇼핑몰에서 환불 방법을 물어보면 사람이 아닌 AI 챗봇이 먼저 답하고,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 해제 방법"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메뉴를 바로 안내해주는 식입니다. 사용자는 그게 AI인지 사람인지 구분조차 어려울 만큼, 대화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확해졌습니다.

음성 AI도 대화형 AI의 한 형태로, 갤럭시의 제미니(Gemini), 애플의 시리(Siri), 구글의 어시스턴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말을 건네고 답을 받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합니다. "오늘 날씨 어때?", "타이머 10분 맞춰줘",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같은 간단한 요청부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근처에서 김치찌개 잘하는 집 찾아줘"처럼 생활밀착형 질문까지 모두 AI가 즉시 응답해 줍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AI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소통하고 반응하며 함께 생각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지시를 받는 도구가 아니라, 조연자이자 동료, 때로는 친구로까지 여겨지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출처: SKT

4. 음악/음성 생성 AI

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장비나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AI의 도움을 받아 음악을 만들거나 사람 목소리를 흉내 내는 일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악 작곡이나 음성 더빙이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누구나 AI를 통해 음악을 만들고, 목소리를 합성하거나,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느새 우리의 실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출처: 믹스오디오



출처: ElevenLabs / Typecast / 네이버클로바더빙



출처: LG유플러스

대표적인 예로, 유튜버나 쇼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AI 보이스 생성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녹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까지 가능한 AI 목소리를 활용해 영상에 내레이션을 붙이거나 정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levenLabs, Typecast, 네이버 클로바더빙 같은 서비스들은 성별, 감정, 말투를 선택하기만 하면,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매끄러운 음성을 생성해 줍니다. 덕분에 영상 제작 경험이 없는 사람도 부담 없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능은 브이로그, 강의 영상, 광고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작곡 서비스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드 진행이나 악기 연주 지식이 있어야 음악을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몇 가지 키워드와 장르만 입력하면, AI가 배경 음악, 테마곡, 루프 사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Soundraw, AIWA, Suno, Mubert 같은 플랫폼은 "잔잔한 분위기의 로맨틱한 피아노곡", "활기찬 운동용 EDM 트랙"처럼 텍스트로 설명만 하면 단 몇 초 만에 곡을 만들어주죠. 이 음악은 유튜브 배경음악, 웨딩 영상, 졸업 영상, 심지어 게임이나 광고에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음악/음성 생성 AI는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는 AI로 만든 '가수 커버곡'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TS, 아이유, 태연의 목소리를 AI가 학습해 전혀 다른 노래를 그들의 목소리로 재해석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업로드해 유명 가수의 스타일로 변환한 노래를 부르는 경험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인에게 '가수가 되어보는 경험', 즉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 기술은 활발히 사용됩니다. 영어 수업에서는 AI 보이스를 활용해 다양한 억양과 발음을 들어볼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형 음성 안내, 고령층을 위한 음성 읽기 도우미 등 접근성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만든 이야기에 AI가 음악을 붙이고 목소리를 입혀주면, 그것이 하나의 나만의 오디오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AI 기술"로 인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AI가 익숙해지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재미로, 누군가는 업무 효율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표현과 창작의 도구로 AI 음악·음성 생성 기능을 '일상 도구'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개인화 추천 AI

요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화 추천 AI’와 거의 매일, 심지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볼지, 뭘 살지, 어떤 음악을 들을지 모두 사용자가 직접 찾고 비교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먼저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딱 맞는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AI 추천은 단순한 편의 수준을 넘어, 일상의 선택과 경험을 크게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자동으로 나열되어 있고, 하나를 보면 그와 비슷한 스타일의 영상이 연달아 추천됩니다. 이 모든 것이 AI가 내가 과거에 어떤 영상을 자주 보고, 얼마 동안 시청했는지, 어떤 주제를 선호하는지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왓챠 등 OTT 플랫폼에서도 AI는 사용자의 시청 이력을 분석해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를 꾸준히 보여줍니다. 이는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고민 없이 골라보게 해주는 큐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AI는 쇼핑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쿠팡, 11번가, 지그재그, 무신사 같은 앱에서 “추천 상품” “최근 본 상품과 유사한 상품” “당신이 좋아할 브랜드”라는 코너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AI가 소비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선호도에 맞는 제품을 예측하고 제안하는 기능입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방대한 제품 중에서 자신의 취향과 예산에 맞는 선택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전환율과 매출이 높아집니다.



출처: 네이버



출처: 와디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론,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은 사용자의 청취 이력을 분석해 나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합니다. 특히 스포티파이의 ‘Discover Weekly(맞춤형 신곡 추천)’는 AI 추천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이 노래는 마치 내 취향을 꿰뚫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더 나아가, 뉴스 앱이나 포털(네이버, 카카오)에서도 AI가 개인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뉴스나 정보를 배치합니다. 스포츠를 자주 본 사람에게 관련 뉴스가 상단에 뜨고, 경제나 IT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에게 그에 맞는 기사로 구성된 피드를 제공합니다. 이것 역시 개인화 추천 AI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클릭, 체류 시간, 검색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생활 깊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 앱에서는 이전 주문 이력을 바탕으로 오늘 먹을만한 메뉴를 추천하고, 네비게이션 앱에서는 자주 가는 목적지나 시간대별 교통 패턴을 고려해 경로를 제시합니다. 건강 앱에서는 사용자의 운동 기록이나 수면 패턴에 따라 추천 운동이나 식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개인화 추천 AI는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관심사, 행동, 취향, 소비 습관에 맞춰 세상을 ‘내 기준’으로 재구성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상품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생각의 방향까지 영향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화 추천 AI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가장 깊게 스며든 AI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5가지의 AI 트렌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잘 쓰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에서 AI를 직접 써보며 그 가능성을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편집자가 선정한 BEST Cut & Writing

이달의 Best Cut & Writing으로 선정되신 직원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복입고 열심히~

예비군 군복을 입고 점심시간에도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니, 묵묵히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예비군 훈련 중에도 회사 업무까지 병행하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한결 같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는 모습 멋집니다!



탁구는 운동이고, 밀면은 보상이다!

탁구동호회 행사 끝나고 다들 땀에 젖은 채로 웃으며 향한 밀면집, 라켓을 내려놓은 손엔 젓가락이 들려 있었고, 코트 위의 스매시는 한참 전 일이었지만, 식탁 위 밀면 앞에서는 다시 경쟁이 시작됩니다. 탁구도 잘 치지만, 역시 회식도 완벽하게 즐기는 화신 탁구동호회!

동행의 기쁨 중 신상품질팀 최주호 주임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행은 배려'라는 것들요. 걷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아내는 걷는 속도를 맞춰 주고, 중간중간 쉬어가자고 권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느꼈고, 그렇게 파리의 거리를 함께 걸으며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화신영리더 중 내부회계감사팀 박영현 주임

'회사'라는 연결고리로 만난 인연은 대부분 퇴사 후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앞선 회사의 동기들과는 자주 연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는 여전히 퇴근 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더욱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우동정 [사우들의 동정과 경조사 등을 전합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2025년 2월 28일	화신정공 생산1팀	윤태종 김동은 선임	득녀
2025년 3월 12일	화신 정보기술팀	김용우 선임	득남
2025년 3월 26일	화신 제품설계1팀	박형서 책임	득남
2025년 3월 28일	화신 생산자재팀	장종운 사원	득녀
2025년 3월 29일	화신 생산1부	신명호 사원	득녀
2025년 3월 31일	화신 설비관리2팀	이재희 책임	득남
2025년 3월 31일	화신 생산2부	김재환 사원	득녀
2025년 4월 17일	화신 생산팀	박준호 사원	득녀
2025년 4월 25일	화신정공 개발팀	김동규 주임	득남
2025년 4월 28일	화신 생산3부	장태준 책임	득녀
2025년 5월 02일	화신 생산2부	김재환 사원	득남
2025년 5월 08일	화신 안전환경노무팀	박진성 주임	득녀
2025년 5월 23일	화신정공 생산1팀	조형욱 사원	득녀
2025년 6월 27일	화신 설비관리2팀	조광재 책임	득녀
2025년 7월 04일	화신 생산팀	최치원 주임	득녀
2025년 7월 11일	화신정공 엔지니어링팀	김수복 책임	득남



결혼을 축하합니다!

2025년 2월 09일	화신 생산팀 최지원 주임 결혼
2025년 2월 16일	미국법인 법인장 김영돌 상무 장녀 결혼
2025년 2월 16일	화신 안전환경노무팀 박진성 주임 결혼
2025년 2월 22일	화신 제품설계3팀 이승준 주임 결혼
2025년 3월 01일	화신 생산1부 김명원 책임 결혼
2025년 3월 09일	화신 생산1부 도장반 김현제 사원 결혼
2025년 4월 05일	화신 부품개발팀 조재영 주임 결혼
2025년 4월 19일	화신 총무팀 손이섭 주임 결혼
2025년 4월 26일	화신 총무팀 장민준 주임 결혼
2025년 5월 10일	화신 생산1부 용접2반 남기원 조장 장남 결혼
2025년 5월 10일	화신 생산1부 용접2반 박성학 사원 장녀 결혼
2025년 5월 11일	화신정공 생산3반 박재욱 사원 결혼
2025년 5월 11일	화신 연구개발본부장 배현주 전무 차남 결혼
2025년 5월 17일	화신 성형솔루션팀 마수정 주임 결혼
2025년 5월 18일	화신 생산2부 프레스2반 정동열 사원 차녀 결혼
2025년 5월 25일	화신 생산3부 강병도 책임 결혼
2025년 6월 07일	화신 생산1부 조립1반 주시연 사원 결혼
2025년 6월 08일	화신 생산1부 용접2반 정동훈 사원 결혼
2025년 6월 21일	화신 EV스트럭처팀 윤준호 사원 결혼

원고를 기다립니다!

사보내 코너와 관련된 글은 물론 화신의 여러가지 소식들, 재밌는 이야기, 알리고 싶은 것 등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하늘타리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



발행일 2025년 7월 21일 / 통권 제73호 발행인 정서진, 장의호 | 편집인 허규학 | 발행처 사보편집부
발행처 총무팀 기획·취재 총무팀 T.054-330-5147 majhur@hwashin.co.kr
「하늘타리」 한울타리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픈 화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울타리에 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보기자단

총무팀 허규학 책임 / 생관자재팀 고대호 주임 / 자율제조개발팀 서성연 주임 / 제품설계1팀 손보경 주임 / 전략마케팅팀 황상원 주임 / 신차품질팀 최주호 주임
내부회계감사팀 광영현 주임 / 글로벌스트럭처팀 최호성 주임 / 생관물류팀 전진호 책임 / 글로벌기획팀 이동훈 주임 / 업무팀 양성련 주임